

두경부 악성종양에서 후인두 림프절 전이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사의 유용성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노영수 · 박일석 · 주형로 · 안희영 · 윤대영

목적 : 두경부 악성종양에서 후인두 림프절 전이는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위치 특성상 수술 전에 후인두 림프절 전이를 판정하는 것은 방사선학적 검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. 이에 저자들은 후인두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한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에서 수술 전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들(CT, MRI, PET-CT)과 병리학적 후인두 림프절 전이 여부를 비교하여 후인두 림프절 전이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사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한림대학교 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에서 두경부 암종으로 원발병소의 절제 및 경부청소술과 후인두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한 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 남자가 38명, 여자가 11명이며 평균연령은 57.9(33~73)세이었다. 수술 전 후인두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방사선학적 검사로는 CT를 49명, MRI를 33명, PET-CT를 10명에서 시행하였고 각각의 결과를 후인두 림프절의 병리조직검사결과와 비교하여 각 검사

들의 민감도, 특이도, 정확도를 분석하였다.

결과 : 병리조직학적으로 후인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모두 17례(34.7%)였다. 후인두 림프절 전이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사의 민감도, 특이도, 정확도는 CT; 88%, 50%, 64%, MRI; 94%, 50%, 72%, PET-CT; 80%, 50%, 67%였다. 병리학적으로 후인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는 대부분 인두벽을 침범한 구인두나 하인두 암이였으며 진행된 경부 림프절 병기를 보이는 경우 후인두 림프절로의 높은 전이율을 보였다($p < 0.05$).

결론 :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에서 후인두 림프절 전이에 대한 수술 전 방사선학적 검사는 높은민감도를 보였지만 낮은 특이도를 보이므로 PET-CT를 포함하더라도 수술 전 후인두 림프절 전이 유무의 방사선학적 검사결과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. 또 진행된 경부 림프절 병기를 보이는 구인두나 하인두암에서는 원발병소의 절제, 경부림프절 청소술과 함께 예방적 후인두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.